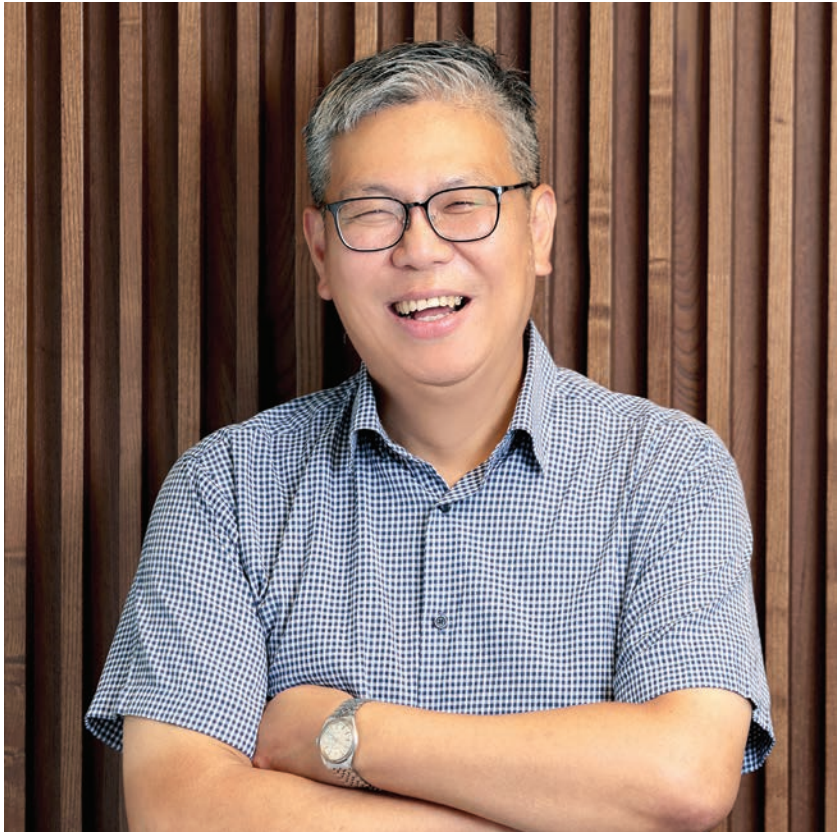




세아해암학술상 수상자 장재일 교수님



Q 우리 학회 세아해암학술상을 수상 하셨는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어려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할 수 있게 해 주신 회장님 이하 학회상 선정위원님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상의 기금을 후원해 주신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학술적

성과를 이룰 때 까지 더 노력해라”는 깊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상의 의미가 빛을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은사이셨던 김상주 교수님과 권동일 교수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Q 나노압입 및 나노역학시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아 오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노역학시험 분야가 처음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기존의 모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작은 하중을 인가하여 작은 스케일의 역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나노압입시험” 장비와 이 장비를 활용하여 재료의 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약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러한 나노압입 및 나노역학시험은 재료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가 되었고, 지금까지 구조재료 뿐 아니라 기능재료에도, 또 금속/세라믹/폴리머 재료 모두에 대한 연구에 활발히 응용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나노압입 및 나노역학시험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탁월한 업적”을 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우수한 대학원생들 및 국내외 연구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1993년부터 우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직책을 맡아 활동해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A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우리 학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석사과정 졸업을 앞둔 1993년 10월, 대전 EXPO와 같은 시기에 KAIST에서 개최되었던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였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복무 및 해외 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춘/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의 임원직과 우리 학회 학술지의 편집진 역할을 맡아 노력했으나,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학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학회가 국내에서 네번째로 큰 규모의 공학 분야 학회답게, 정기 학술대회를 더 이상 학교에서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세 가지 SCIE 저널을 가진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금속재료공학 후배(또는 학생)에게 멘토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멘토로서 보다는 같은 방향의 길을 조금 먼저 걷고 있는 선배로서 말씀 드린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의 제언은 제 개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지 못했기에 느끼는 후회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대학원 기간은 연구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가 “성공담” 보다는 “성장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좋은 “실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로 차근차

근 성장하면서 좋은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력을 쌓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자의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자의 태도란 자기에게 맞는 연구 접근법 발견, 합리적 사고법 훈련, 연구윤리의 체화, 연구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숙명으로 하는 우리 공학자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팀워크 정신, 즉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공동연구자에 대한 배려심까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장담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학위과정 중에 주변 동료들의 실적과 자신의 실적을 비교하며 낙담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우수한 실적이란 다음 단계 진로의 진입장벽을 다소 낮춰 줄 뿐, 결국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당당하고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인을 준비시키는 것일 겁니다. 이는 실적과 같은 수치가 말해줄 수 없고, 본인만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Q 교수님의 좌우명이나 인생철학은 무엇인지요?

A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가족과 동료, 친구 등 주위의 많은 도움과 격려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십이 넘어서야, 저 역시 제가 받은 것에는 못 미치겠지만 미력하나마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교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칼럼의 제목인 “Student is legacy.”라는 말을 자주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직업인으로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훌륭한 제자들과 만나서 “조



언할(advise)”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입니다. 제가 인기있는 교수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들 모두 각자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고 졸업 후에도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과분한 기쁨입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았습디만, 남은 기간 동안에 제 연구실의 제자들 뿐 만 아니라 후배 연구자들이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